

## 한국어 학습자의 탈동기 요인에 대한 연구 -영어권 학습자를 중심으로-

---

김 미 옥

(연세대학교)

---

---

## ABSTRACT

---

**Kim, Miok. 2019. A Study on the Demotivation Factor of Korean Language Learners.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53. 1-34.** Motivation is a crucial factor in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demotivation is a relatively new issue in the field of Korean as a second language. In this study, I review previous studies that investigated demotivation of English learners and Korean learners in order to identify common demotivating factors. A 40-item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302 Korean learners who study in the exchange program of the university. Their responses were analyzed through statistics. The results showed that class materials factor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lasses factors, in other words learning contents and materials were demotivating factors for many Korean learners. And lack of interest and teacher factors were not very strong causes of demotivation.  
(Yonsei University)

핵심어: 탈동기(demotivation), 동기(motivation), 재동기(remotivation), 한국어 학습(Korean language learning), 학습자 변인(learner factor)

## 1. 들어가기

많은 교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끌어올릴 수 있으며 계속 이러한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학습 동기는 학습의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이며, 동기의 결여는 바로 학습의 실패를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Akay, 2017:107) 동기는 행동을 일으키고 지시하고 유지하게 하는 내적인 상태를 의미하며, 동기가 부여되면 목표를 향해서 힘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Woolfolk, Wonne & Perry, 2003:354). 그러나 처음에는 높은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어도 점차 시간이 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학습 동기가 저하되거나 감소하여(demotivation) 결국은 무동기 상태(amotivation)로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장에서도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교사들과 연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학습자들이 교수 학습 환경에서 동기를 상실하거나 좌절하며 동기가 저하되어 중도에 학습을 포기하는 등 학습에 성공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는 곧 학습자들이 학습하는 과정 중에는 동기를 감소시키고 약화시키는, 다시 말해 탈동기 화하게 하는 어떤 요인들이 늘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어려운 문법과 지루한 수업 환경, 오래된 교재, 교사의 부정적 태도, 시험에 대한 부담감, 과다한 학습량 등 흥미를 잃게 만드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는 최근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하고 있는 영어권 학습자들의 비중이 높은 교환학생과정을 중심으로 탈동기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영어권 국가에서 K-POP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인기에 힘입어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하는 고무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주로 중국과 일본,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한류에 대한 인기와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은 이제 아시아 국가권을 넘어 미국, 유럽, 아프리카, 아랍권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특히 방탄소년단(BTS) 등 K-POP이 미국과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그동안 현지 교포 자녀들이 학습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예전과는 달리 순수 외국인들이 학습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문화에 대한 관심 때문에 한국어를 학습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어 학습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적이다.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싫어지면 언제든 중도에 그만둘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이 학습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동기 부여와 동기를 저하시키는 탈동기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탈동기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탈동기 요인이 학습자 변인 즉, 성별과 한국어 수준, 국적 및 모국어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학습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탈동기 요인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학습자들의 변인에 따라 탈동기 요인의 차이가 있는가?
  - 2-1 성별에 따라 탈동기 요인의 차이가 있는가?
  - 2-2 한국어 수준에 따라 탈동기 요인의 차이가 있는가?
  - 2-3 국적에 따라 탈동기 요인의 차이가 있는가?
  - 2-4 모국어에 따라 탈동기 요인의 차이가 있는가?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 2.1. 이론적 배경

동기는 개인차를 설명해 주는 주요 특징들 가운데 하나이며 제 2언어 습득의 핵심 요인으로 간주되었다(Crookes & Schmidt, 1991; Dörnyei, 1994) 제 2언어 교육 분야에서 동기에 관한 연구는 195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Dörnyei(2005)는 이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누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59년~1990년으로 사회심리학적 시기(the social psychological period)이다. 주로 Gardner와 그의 동료들로 대표될 수 있는 사회 교육 모형이 이에 속한다. 1959년 Gardner와 Lambert가 최초로 동기적 요인이라고 명명하며 학습 동기 연구의 기초를 제공한 이래 Gardner와 그의

동료들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학습자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두 가지의 지향성, 즉 통합적 지향성과 도구적 지향성을 주장하였다. 통합적 지향성 혹은 통합적 동기는 학습자가 목표어가 사용되는 사회에 동화되어 그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한다. 또 도구적 지향성 혹은 도구적 동기는 외국어 학습이 취업이나 학점, 시험 합격 또는 승진을 위한 것, 즉 구체적인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언어를 학습하는 동기를 말한다.(Gardner, 1985) 그러나 후에 학자들은 두 가지 동기는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보완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통합적 동기와 도구적 동기를 구분하여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어느 동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도구적 동기로 학습을 시작한 학습자라 하더라도 나중에 통합적 동기로 전환하기도 한다고 하였다.(Brown, 1987)

두 번째 단계는 인지 상황적 시기(the cognitive-situated period)이다. 이 시기는 주로 교육 심리학의 인지적 이론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연구들로 특징지을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사회교육 모형에 근거한 Gardner의 제 2언어 학습 동기 이론이 지나치게 심리학적 관점에 치중되어 있다고 비판함에 따라 1990년대에는 여러 대안적 모형들이 대두되었다. 이 중 대표적인 이론은 Deci & Ryan(1985)의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으로 200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그들은 학습 동기가 발생하는 근원이 학습자 내부에 있는 경우, 즉 학습 행위 자체가 학습자에게 내적인 충만감을 주는 경우에는 내재적 동기이고, 학습 동기가 유발되는 원인이 학습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예컨대 부모나 교사의 칭찬 혹은 보상, 학점, 성적, 승진, 취업 진학 등 학습자 외부에 존재하는 경우를 외재적 동기로 구분하였다. 장기적으로 보면 내재적으로 동기화된 학습자들이 외재적으로 동기화된 학습자들보다 학습 성취율이 높으며, 학습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과정 지향적 시기(the process-oriented period)로 1990년대 중반부터 학습 동기의 역동성을 강조하면서 동기는 정체된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며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Dörnyei, Ushioda와 그의 동료

들의 연구가 이 시기를 대표하며, Dörnyei의 제 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L2 Motivational Self System)가 대표적 이론이다. Dörnyei(2005)는 외국어 학습 동기를 통합적 지향성과 도구적 지향성의 이분법적 개념으로 분리하기보다는 이 두 개념을 수정 보완하여 하나로 통합시킬 개념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외국어 학습 동기를 학습자 개인의 이상적 자아실현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제 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 이론을 제안하였다. 그는 제 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 이론을 통해 새로운 학습 동기 이론인 이상적 제 2언어 자아(ideal L2 self)와 필연적 제 2언어 자아(ought to L2 self)로 동기 이론을 발전시켜 설명하였다. 이상적 제 2언어 자아(ideal L2 self)는 외적 요인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닌 학습자 스스로가 설정한 최선의 바람직한 미래상이며, 필연적 제 2언어 자아(ought-to L2 self)는 학습에 실패하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방지하여 자신의 의지로 미래에 성취해야만 하는 자아상을 의미한다. 또한 Dörnyei는 학습자가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탈동기는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의 근원을 감소시키거나 상실시키는 특정한 외부적 힘이라고 정의하였다.(Dörnyei, 2001:143) 그는 탈동기는 주로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이며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학습에 대한 흥미와 열정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흥미나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탈동기화가 아니며, 특정한 외부 요인에 의한 지속적인 동기의 감소가 탈동기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탈동기화된 학습자는 부정적인 힘에 의해 동기가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힘이 남아 있어 작용을 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요인이 제거되면 다시 동기화, 즉 재동기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Dörnyei and Ushioda, 2011) 그러나 시작부터 자신의 무능력이나 무력함, 또는 학습 행동에 가치를 두지 않거나 행동하려는 의지가 없는 상태는 무동기(amotivation)로 설명하며 탈동기와 구분을 지었다.

탈동기의 원인을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는 Dörnyei의 주장에 대해 많은 학자는 탈동기는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자신감의 결여나 학습자 내부에 존재하는 부정적 태도 등과 같은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도 나타난다고 주장하였고(Arai, 2004; Falout and Maruyama, 2004; Kojima, 2004; Tsuchiya, 2004), 심지어 Dörnyei 역시 자신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의 자신감 부족과 외국

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탈동기의 요인에 포함시킨 것(Dörnyei, 2001)으로 볼 때 탈동기의 요인은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Sakai and Kikuchi, 2009:58).

## 2.2. 선행 연구

탈동기에 관련된 연구는 지난 수십 년간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특히 제 2언어 교육에서 탈동기 연구는 Dörnyei(1998)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그의 연구는 Gorham & Christophel(1992)의 연구에 영향을 받았는데 그들은 ‘대학 수업에서 동기와 탈동기 요인으로서의 교사 행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라는 연구에서 전체 탈동기 요인 중 76%가 교사 관련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 후 Dörnyei(1998)는 탈동기화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9가지의 탈동기 요인을 밝혀냈으며 Dörnyei(2001)는 그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다음의 9가지 탈동기 요인을 발표하였다. ① 교사의 성격, 헌신, 능력, 교수법 ② 부적절한 학교 시설(과다한 학생 수, 부적절한 학급 수준, 교사의 빈번한 교체) ③ 실패 경험에 기인한 자신감 결여 ④ 외국어 학습에 대한 부정적 태도 ⑤ 외국어 수업이 가지는 강제적 속성 ⑥ 전에 공부한 다른 외국어의 간섭 ⑦ 목표어가 사용되는 사회에 대한 부정적 태도 ⑧ 그룹 구성원에 대한 태도 ⑨ 사용되는 교재 등이다. 9개 요인 중 빈도가 가장 높은 요인은 40%를 차지하는 교사 관련 요인이었다. 그의 탈동기 요인은 이후 국내외 탈동기 연구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여러 연구(Kikuchi-Sakai, 2007; Kim, K. J. 2009; 이나윤, 2013; 성현미, 2016)에서 인용되고 활용되었다.

Dörnyei의 탈동기 이론은 외국어 교육 분야, 특히 아시아권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들의 탈동기를 경험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여러 나라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주로 중국과 일본에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베트남(Trang & Baldauf(2007), 이란(Hassaskhah, Zafarghandi & Frazeli(2015)) 등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탈동기 요인이 무엇인가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중국에서는 탈동기 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Hu and

Cai(2010)는 중국의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습에 대한 흥미, 학습 목표, 균형감, 불안, 귀인, 학습 환경 등 6개의 탈동기 요인을 밝혔으며, Wang(2012)은 중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개의 내적 요인(내적 흥미의 결여, 효과적인 학습 전략의 부재)과 3개의 외적 요인(교사의 능력, 교육과정과 교육자료, 교사의 잘못된 애착관계)으로 탈동기 요인을 밝혔다. Li(2013)는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신감의 감소, 불충분한 정서적 인식, 학습 전략의 결여, 내적 흥미의 부족을 탈동기 요인으로 꼽았으며 Sun and Lei(2013)는 중국의 EFL 수업을 연구한 결과 교사 관련 요인, 학습 내용, 학습자 관련 요인, 교육 환경 등 4개 요인을 탈동기 요인으로 제시하였다.(Li, C. and Zhou T, 2017, 129쪽 재인용)

일본에서도 영어를 공부하는 일본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탈동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중국과 같이 주로 탈동기 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Falout and Maruyama(2004)는 Dörnyei의 9개 요인을 기반으로 구성한 설문지 조사 연구 결과 6개의 요인(교사, 교육과정, 목표어 사회에 대한 태도, 목표어 자체에 대한 태도, 자신감, 그룹 구성원에 대한 태도)을 추출하였으며, Arai(2004)는 4개 요인(교사의 행동이나 성격, 단조롭고 지루한 수업, 학급 분위기, 기타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 교사 요인이 전체의 4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밝혔다. Tsuchiya(2006)는 9개의 탈동기 요인(교재, 학급, 목표어 공부에 가지는 강제적 속성, 목표어 사회에 대한 부정적 태도, 목표어 자체에 대한 부정적 태도, 자신감 결여, 그룹에 대한 부정적 태도, 긍정적인 목표어 발화 모형의 결여, 이전 경험에 근거한 학습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Kikuchi and Sakai(2007)는 5개 요인(교재, 부적절한 학교 시설, 시험 성격, 교수 방법, 교사의 능력)을 탈동기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Falout, Elwood & Hood(2009)는 크게 세 가지, 즉 외재적 요인, 내재적 요인, 반응적 요인으로 탈동기 요인을 분류하였으며, 이 세 가지 요인 아래에 세 가지씩 하위 요인을 두어 1)외재적 요인(교사의 접근 용이성, 문법-번역식 교수법, 수업의 수준), 2)내재적 요인(자기 비하, 가치 부여, 자신감), 3)반응적 요인(도움 구하기, 흥미 찾기, 회피)로 탈동기 요인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중국과 일본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정리해보면 탈동기



요인이 몇 개의 공통적 요인, 즉 크게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압축되며, 각각의 요인은 교사 관련 요인과 학습자 관련 요인, 학습 내용 관련 요인, 환경적 요인 등으로 분류됨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주로 영어 교육을 중심으로 탈동기 원인을 다룬 연구들이 많이 있었다. 탈동기 요인을 추출한 연구로는 빙후승(2010)<sup>1)</sup>과 여숙림(2015)<sup>2)</sup>의 연구가 있으며, 탈동기의 주요 변인을 연구한 연구로는 정숙경(2011)<sup>3)</sup>의 연구와 마지현과 조영아(2014)<sup>4)</sup>, 조영아와 정호영(2015)<sup>5)</sup>의 연구가 있다. 성취도 집단별 탈동기 원인을 조사한 연구로는 성취도 하위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이송희·김태영(2015)<sup>6)</sup>의 연구와 중하위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주미란·박성만(2015)<sup>7)</sup>의 연구가 있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2016년 김지영의 연구를 시작으로 홍종명, 정나래,

- 
- 1) 빙후승(2010)은 643명의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개요인(영어 학습의 어려움, 교사의 능력 및 수업 방식, 영어 교과의 특성, 학습 동기 및 흥미 저하, 부적절한 학습 환경, 영어 학습의 어려움)을 추출하였다.
  - 2) 여숙림(2015)은 262명의 대학습자를 대상으로 탈동기 요인을 알아본 결과 4개요인(학습자 요인, 교사 요인, 교수방법 요인, 환경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학습자 내재적인 요인이 탈동기화의 주요 요인임을 밝혔다.
  - 3) 정숙경(2011)은 125명의 대학습자를 대상으로 탈동기 및 재동기 요인을 연구하였는데 연구 결과 외적 요인이 내적 요인보다 더 영향을 미쳤으며, 학습 환경이 학습자 요인보다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4) 마지현과 조영아(2014)는 160명의 대학습자를 대상으로 탈동기와 재동기 요인을 연구하였는데 연구 결과 외적 요인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내적 요인으로는 자신감 감소가 탈동기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 5) 조영아와 정호영(2015)은 105명의 대학습자를 대상으로 재동기와 탈동기 요인을 살펴본 결과 외적요인이 탈동기의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6) 이송희·김태영(2015)은 성취도 하위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 영어에 대한 부정적 태도, 학습 교재의 부적합성, 영어에 대한 강제적 성격, 자신감 부족 등이 탈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7) 주미란·박성만(2015)에서는 중하위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탈동기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교사나 주변 환경 등의 외적 요인보다는 학습자의 흥미, 자신감, 학습 성패 경험 등 내적 요인에 의해 동기 저하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한별의 연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김지영(2016)은 한국어 학습자의 탈동기화 요인을 알아보고자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탈동기화 요인의 범주를 설정하고 설문지를 구성하여 한국어 학습자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6개의 탈동기요인(교사 요인, 학습의 어려움, 부정적인 태도, 시험 및 학습량, 자신감 감소 및 불안감 증가, 흥미 감소)을 추출하였다. 또 모국어권별 차이를 연구한 결과 중국인 학습자와 일본인 학습자의 모국어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숙달도별 차이를 본 결과 학습의 어려움에 있어서 5급이 4급과 6급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요인에서는 숙달도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요인 중 학습의 어려움이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감 감소 및 불안감 증가 요인과 시험 및 학습량이 각각 그 뒤를 이었다. 교사 요인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탈동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종명(2017a)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321명을 대상으로 김지영과 여숙림의 조사 도구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7개의 탈동기 요인(학습 부담, 학습심리와 태도, 교사 요인, 학습 내용, 시험, 학습 환경, 외적 요인)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7개 요인 중 학습 부담이 가장 탈동기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 요인은 영향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별 차이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탈동기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숙달도에 따라서는 고급 단계로 올라가면서 탈동기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종명(2017b)은 239명의 초중급 베트남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7개의 탈동기 요인(학습 부담, 학습심리와 태도, 교사 요인, 학습 내용, 시험, 학습 환경, 외적 요인)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탈동기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숙달도면에서는 숙달도가 높아짐에 탈동기 현상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개요인 중 학습 부담과 시험 요인이 탈동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 요인은 동기 저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나래(2017)는 싱가포르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등록한 학습자 312명을 대상으로 동기와 탈동기 요인을 분석하였다. 탈동기 요인으로 8개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가 요인과 언어 요인

이 가장 높은 탈동기 요인 순위를 차지했으며, 학습 환경 요인, 교수 방법 요인, 학습자 요인, 교재 요인, 교사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박한별(2018)은 싱가포르에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거나 배운 적이 있는 성인 학습자 342명을 대상으로 동기와 탈동기 요인을 분석하였다. 탈동기 요인은 모두 11개 요인이었으며 탈동기 요인에 대한 평균은 전체적으로 5점 만점에 2.22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주된 학습 탈동기 요인으로는 학습에 대한 어려움이나 자신감 부족을 뜻하는 학습 심리가 평균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어에 대한 태도가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학습 내용, 평가 요인, 기타 외적 요인, 교재 요인, 교수 방법, 학습 환경, 그룹 구성원에 대한 태도,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태도, 교사 요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교육에서 이루어진 탈동기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학습 부담 및 학습 내용 등 한국어가 가지는 내용적 어려움으로 동기가 저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였으며, 교사 요인이 탈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 변인별 결과는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 하고 있다. 즉 성별에 따른 차이나 숙달도에 따른 차이는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여 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더 축적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서울 소재 대학의 부설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2018년도 2학기 교환학생과정에 등록한 총 302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교환학생과정은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온 외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과정으로 이들은 선택과목으로 한국어 과목을 수강한다. 1년에 봄, 가을에 16주 2학기로 진행된다. 이들은 주로 영미권에서 온 학습자들이 대다수이며 이들 학습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교환 학생 중 약 80%를 차지한다. 한국의 대학에서는

전공 및 전공 관련 과목을 영어로 수강하며 한국어는 각자의 선택과 필요에 의해 수강하는 선택 과목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한국어 분야에서 이루어진 탈동기 관련 연구들이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영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20세~25세의 연령대로 영미권에서 K-POP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 층과 가장 동질적인 부분이 많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앞으로 영미권 교수 학습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자는 모두 302명이며 초급부터 고급까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학습자 개인 변인은 성별, 연령, 한국어 수준, 국적, 모국어 등 모두 다섯 가지로 구성하였다. 연령대는 19세에서 25세까지가 97.5%를 차지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56	18.5%
	여자			246	81.5%
한국어 수준	초급	213 (73.8%)	1급	159	52.6%
			2급	64	21.2%
	중급	62 (20.5%)	3급	39	12.9%
			4급	23	7.6%
	고급	17 (5.6%)	5급	13	4.3%
			6급	4	1.3%
합계				302	100%

〈표 1〉 조사 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

### 3.2. 연구 도구

국내에서 탈동기 요인을 제시한 연구들에서 참고한 연구 도구는 대체로 Dörnyei(1998), Falout-Maruyama(2004), Sakai-Kikuchi (2009)의 연구 도구가

며 이들을 조금씩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sup>8)</sup>

본 연구에서는 Kikuchi(2015)의 조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그는 Sakai-Kikuchi (2009)의 연구 도구를 수정 보완하였는데, 총 35문항으로 이루어진 Sakai-Kikuchi(2009) 설문지를 Rasch 모형 중 하나인 평정척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개방형 질문의 경우 질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 모두 6개의 탈동기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내적 변인과 외적 변인으로 범주화하여 최종 40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지 문항의 양호도를 판단하기 위해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문항 전체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96로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한국어 학습 탈동기 요인에 관한 설문지는 1)교사 요인, 2)학습의 특성 요인, 3)실패 경험 요인, 4)교실 분위기 요인, 5)교육 자료 요인, 6)흥미 결여 요인 등 6가지 요인이며 아래 <표 2>와 같이 5~8개씩 하위 문항을 넣어 총 40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6개의 탈동기 요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교사: 교사의 태도, 교사의 능력, 목표어 숙달도, 성격, 교수 스타일
- ② 학습의 특성: 교과과정의 내용과 진도, 어려운 문법이나 어휘 치중의 수업, 단조롭고 지루한 수업, 시험 위주의 수업, 암기 등
- ③ 실패 경험: 성적에 대한 실망감, 교사나 친구들로부터의 인정받지 못함. 어휘나 관용구 암기를 못 한다는 느낌
- ④ 교실 분위기: 학급 구성원들의 태도, 목표어 수업의 강제성, 친구들의 태도, 소극적인 학급, 부적합한 수준, 기자재 부족 등과 같은 미흡한 학교 시설.
- ⑤ 교육 자료: 부적절하거나 흥미가 떨어지는 자료나 주제
- ⑥ 흥미의 결여: 수업에서 사용되는 목표어가 실제적이지 않거나 불필요하다는 느낌, 목표어 화자에 대한 존중감의 결여 등이다.

8) 김지영(2016) Falout-Maruyama(2004), Sakai-Kikuchi (2009)의 연구 도구를 수정 보완

빙후승(2010), 현주은·김태영(2013)의 도구를 수정 보완

홍종명(2017) 김지영(2016), 여숙림(2015)의 연구 도구를 수정 보완

정나래(2017) Dörnyei(1998), Falout-Maruyama(2004)의 연구 도구를 수정 보완

박한별(2018) Dörnyei(1998), 홍종명·정나래의 연구 도구를 수정 보완

탈동기 요인	문항 및 설문 내용
1. 교사 (외적 요인)	5. 교사의 설명이 알아듣기 어렵다. 6. 교사의 한국어 발음이 나쁘다. 17. 교사의 일방적 설명이 많다. 18. 교수 접근법이 좋지 않다. 30. 교사가 소리를 치거나 화를 낸다. 34. 교사와 관계가 좋지 않다. 36. 문법적으로 정확한 한국어 사용을 기대했다.
2. 학습의 특성 (외적 요인)	4. 유인물이 너무 많다. 19. 수업의 대부분이 번역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20. 대부분의 수업이 시험 대비에 치중한다. 21. 수업이 단조롭다. 22. 교과서의 문장을 외우도록 강요받는다. 25. 문법 중심 수업이다. 29. 공부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다. 31. 수업 진도가 적절하지 않다. 32.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3. 실패 경험 (내적 요인)	7. 친구만큼 시험을 잘 보지 못 한다. 8. 공부를 하는데도 문법을 잘 이해하지 못 한다. 13.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15. 단어나 구를 외우는 게 힘들다. 33. 스스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39. 수업 내용을 이해 못 하기 시작했다.
4. 교실 분위기 (외적 요인)	10. 반 친구들은 한국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23.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28. CD나 테이프 등 청각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35. 시각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37. 한국어는 필수 과목이다. 40. 학급에 학생 수가 많다.
5. 교육 자료 (외적 요인)	1. 교과서의 한국어 문장이 이해하기 어렵다. 9. 공부해야 할 교재와 보충 자료가 너무 많다. 12. 교과서 주제의 흥미도가 떨어진다. 14.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 16.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다.

	27. 교과서의 주제가 너무 오래된 것이다.
	38. 교과서의 문장이 너무 길다.
6. 흥미의 결여 (내적 요인)	2. 한국어 가능자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상실했다.
	3. 한국어 공부의 목적을 상실했다.
	11. 한국어 공부에 대한 특별한 목표가 없다.
	24.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
	26. 나중에 한국어를 쓸 것 같지 않다.

〈표 2〉 탈동기 요인 및 내용

### 3.3. 자료 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 25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학습자의 특성과 개별 문항 분석을 위해 빈도 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탈동기 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 숙달도 및 언어권, 모국어에 따른 탈동기 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 4. 연구 결과

### 4.1. 탈동기 요인별 분석

탈동기 요인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평균값을 보면 대체로 4점 만점 중 1점대로 높지 않은 점수를 보였으며 가장 높은 탈동기 요인은 ‘교육 자료’이고, 그 다음은 ‘학습의 특성’ ‘실패 경험’ ‘교실분위기’의 순이었다. 가장 낮은 요인은 ‘흥미 결여’이었으며 그 다음은 ‘교사행동’으로 나타났다. 즉 학습자들은 교사나 흥미로 인해 동기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문항은 교육 자료에 관한 것이었다.

요인	평균	표준 편차
교육 자료	1.80	.48
흥미 결여	1.38	.50
교사 행동	1.48	.29
실패 경험	1.74	.68
교실분위기	1.72	.47
학습 특성	1.76	.50
내적 요인	1.56	.52
외적 요인	1.69	.35

〈표 3〉 탈동기 요인별 통계

교육 자료 문항 중 가장 높은 값을 보인 문항은 ‘교과서의 주제가 너무 오래된 것이다’(2.2)로 교과서의 주제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학습자들의 흥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높은 값을 보인 문항은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다’(1.92)이었다. 영어권 학습자가 대부분인 교환학생과정 학습자에게 어휘는 학습에 큰 부담 요인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 번째로 높은 값을 보인 문항은 ‘공부해야 할 교재와 보충 자료가 너무 많다’(1.86)로 역시 학습량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홍종명(2017b)에서도 학습 부담 요인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학습자, 특히 문법 체계나 구조가 전혀 다른 영어권 학습자에게 한국어는 습득하기 어려운 언어이며, 이러한 학습 부담이 동기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요인은 ‘학습의 특성’이다. 평균값이 가장 높은 문항은 ‘문법 중심 수업이다’(2.6), ‘공부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다’(2.1)이었는데, 영어권 학습자들은 어휘와 문법 중심의 수업과 많은 학습량에 대한 어려움과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평균값이 높은 요인은 ‘실패 경험’이었는데 이에 속하는 문항들을 살펴보면 ‘단어나 구를 외우는 게 힘들다’(2.1), ‘스스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1.9)의 값이 높게 나타났다. 영어권 학습자들은 모국어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이다 보니 유럽권이나 아시아권의 학습자들에 비해 외국어



학습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외국어를 공부한 경험이 적다. 이런 이유로 영어권 학습자들은 외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으며 특히 전혀 구조가 다른 한국어를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학습자들에 비해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고 문법이나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어 탈동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평균값이 가장 낮게 나타난 요인이 ‘흥미 결여’라는 점은 매우 다행스럽다.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이런저런 불만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이다. 또한 ‘교사 요인’에 대한 평균값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에서는 교사 요인이 탈동기의 주원인으로 밝혀진 연구가 많이 있었는데 (Dörnyei(1998), Christophel and Gorhan(1992), Arai(2004), Zhang(2007), Kikuchi(2009)), 한국어 교육 분야 연구에서는 교사 요인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영(2016), 정나래(2017), 홍종명(2017))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주로 외국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은 제 2언어로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었는데, 특히 일본이나 중국 등 아시아권에서는 원어인 교사가 아닌 현지인 교사가 영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고등학교에서 영어는 필수 과목으로 학습자의 선택의 여지가 없고 주로 시험 대비 과목으로 수업이 진행되다보니 수업이 일방적이고 교사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한국어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경우 대부분 한국인 교사가 수업을 담당하고 한국어 과목도 학습자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 교사에 대한 불만이 적고 시험 부담에서도 입시 준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변인을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구분해서 보았을 때는 외적 요인이 내적 요인보다 평균값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습자 내재적 요인보다는 교재나 학습의 특성 등 외재적인 요인으로 인한 탈동기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내적 요인이 탈동기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결과(Falout, J. Maruyama, M. (2004), 여숙림(2015), 주미란·박성만(2015)와는 상이하며, 또 외적 요인이 탈동기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

다고 한 결과(Ushioda(1998), Trang & Baldauf(2007), Tsuchiya(2006), Li, C. and Zhou, T. (2017), 정숙경(2011), 마지현과 조영아(2014), 조영아와 정호영(2014)와는 일치한다.

## 4.2. 학습자 변인별 분석

### 4.2.1. 성별

성별에 따라 탈동기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나 학습 특성 요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요인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값이 높아 탈동기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성별에 따른 탈동기 경향성은 대체로 남자가 여자보다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현주은·기태영, 2013, 홍종명, 2017a)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베트남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홍종명(2017 b)의 연구에서는 성별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자가 남자보다 탈동기 경향이 다소 강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아 성별이 탈동기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성별	N	평균	표준 편차
교육 자료	남자	56	1.92	.50
	여자	246	1.77	.47
실패 경험	남자	56	1.82	.75
	여자	246	1.72	.67
흥미 결여	남자	56	1.49	.57
	여자	246	1.35	.48
교사 행동	남자	56	1.54	.31
	여자	246	1.45	.29

교실 분위기	남자	56	1.74	.46
	여자	246	1.71	.48
학습 특성	남자	56	1.73	.57
	여자	246	1.76	.48
내적 변인	남자	56	1.65	.59
	여자	246	1.53	.497
외적 변인	남자	56	1.74	.39
	여자	246	1.67	.34

〈표 4〉 성별에 따른 요인별 평균 값

#### 4.2.2. 숙달도

숙달도에 따라 탈동기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학습자가 속한 급은 모두 1급부터 6급이었으며 1급이 159명으로 52.6%를 차지하였고 2급은 총 64명으로 21.2%를 차지하여, 1급과 2급이 전체의 7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3급은 39명(12.9%), 4급은 23명(7.6%)으로 3급과 4급은 전체의 20.5%를 차지하였다. 5급은 13명(4.3%), 6급은 4명(1.3%)로 5급과 6급이 전체의 5.6%를 차지하였다. 급이 높아질수록 학습자 수가 감소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sup>9)</sup> 특히 교환학생 과정의 경우 일반 과정에 비해 초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고급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sup>10)</sup> 교환학생 과정의 경우 6급이 4명에 지나지 않아 통계적 검증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수가 충족되지 못하였으므로 1, 2급을 초급(223명)으로 3, 4급을 중급(62명), 5, 6급을 고급(17명)으로 재구성하여 초급과 중급, 고급의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9) 급별 학습자 수 변화 상황을 보면 국외 대학의 경우 한국어 학습 단계가 올라갈수록 학습자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국외 대학뿐만 아니라 방성원 외(2015:52)의 자료를 통해 세종학당에서도 초급 단계에는 학습자 수가 많지만 학습 단계가 올라갈수록 학습자 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10) 일반 과정의 경우 고급이 차지하는 비율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경우 2018년 기준 초급이 41%, 중급이 43%, 고급이 16% 정도를 차지한다.

요인	숙달도	M	SD	F
교육자료	초급	1.76	0.45	5.80**
	중급	1.97	0.56	
	고급	1.64	0.47	
흥미결여	초급	1.43	0.52	3.96**
	중급	1.23	0.35	
	고급	1.36	0.53	
교사행동	초급	1.50	0.30	2.87
	중급	1.42	0.24	
	고급	1.38	0.33	
실패경험	초급	1.74	0.71	1.68
	중급	1.81	0.63	
	고급	1.47	0.49	
학급분위기	초급	1.76	0.48	2.99
	중급	1.62	0.43	
	고급	1.59	0.52	
학습특성	초급	1.77	0.50	2.18
	중급	1.79	0.45	
	고급	1.52	0.56	
내적변인	초급	1.58	1.55	1.06
	중급	1.52	0.40	
	고급	1.42	0.47	
외적변인	초급	1.70	0.35	1.74
	중급	1.70	0.35	
	고급	1.53	0.43	

\*\* p<0.01 \* p<0.05

〈표 5〉 숙달도에 따른 탈동기 요인별 평균 비교

고급의 경우 거의 모든 요인에 있어서 탈동기 값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인 홍종명(2017)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과 베트남 학습자들의 경우 고급 단계로 갈수록 탈동기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급은 흥미 결여, 교사 행동, 학급 분위기 등에서 높은 값을 보였으며, 중급은 교육 자료와 실패 경험, 학습 특성에서 높은 값을 보였다. 초급 학습자들이 학습자가 가장 많은 반면 대체로 탈동기 값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어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으로 한국어 학습을 시작했으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탈동기화되어 급이 올라갈수록 학습을 지속하는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초급 학습자들의 이탈을 막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급의 경우 교육 자료 즉 주제나 단어, 문장의 난이도 등에 대한 탈동기 값이 높았으며, 실패 경험, 즉 점수나 단어 암기, 공부 방법, 수업 이해도 등에 대한 어려움, 또 학습 특성, 즉 교수법이나 내용, 진도에 대한 불만 등에 관한 문항 값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것은 흥미 결여 변인에 있어서는 중급의 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은 한국어 학습에 계속 흥미를 느끼고 있으나 학습상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들이 계속 흥미를 가지고 한국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중급 학습자들에 대한 관심과 흥미 부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숙달도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인지를 검증한 결과 교육 자료와 흥미 결여 요인에서  $p < .01$  수준에서 급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자료 요인의 전체 평균값은 1.80으로 크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6가지 요인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이다. 교육자료 요인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중급에서 탈동기 수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숙달도 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e의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초급과 중급, 그리고 중급과 고급 사이에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 결여 요인은 6가지 요인 중 가장 수치가 낮았다. 학습자들이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다행스러운 결과로 해석된다. 흥미 결여 요인에서 특히 중급의 탈동기 수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Scheffe의 사후 검정 결과 흥미 결여 요인의 경우 초급과 중급, 중급과 고급 사이에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요인 외 다른 요인에서는 숙달도 간의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 4.2.3. 국적

국적에 따라 탈동기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학습자의 국적은 북미 및 유럽(미국과 유럽) 239명, 중국 38명, 일본 11명, 동남아 10명으로 영어권이 79.1%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중국이 12.6%를 차지하였다. 기타권은 4명으로 이들은 재외 교포 및 남미, 러시아로 인원수도 적고 동질적이지 않아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요인	국적	M	SD	F
교육 자료	북미 · 유럽	1.85	.48	3.39*
	중국	1.60	.44	
	일본	1.51	.47	
	동남아	1.77	.39	
흥미 결여	북미 · 유럽	1.39	.49	.65
	중국	1.33	.54	
	일본	1.49	.57	
	동남아	1.20	.30	
교사행동	북미 · 유럽	1.50	.29	2.12
	중국	1.38	.26	
	일본	1.33	.34	
	동남아	1.49	.30	
실패경험	북미 · 유럽	1.80	.49	4.2**
	중국	1.43	.54	
	일본	1.41	.57	
	동남아	1.55	.30	
교실 분위기	북미 · 유럽	1.77	.48	2.72*
	중국	1.56	.41	
	일본	1.55	.54	
	동남아	1.58	.36	

학습특성	북미 · 유럽	1.81	.50	3.95**
	중국	1.53	.48	
	일본	1.47	.33	
	동남아	1.85	.44	
내적 변인	북미 · 유럽	1.60	.52	2.43*
	중국	1.38	.47	
	일본	1.45	.51	
	동남아	1.38	.38	
외적 변인	북미 · 유럽	1.73	.35	4.36**
	중국	1.52	.33	
	일본	1.46	.36	
	동남아	1.67	.29	

\*\* p&lt;0.01 \* p&lt;0.05

〈표 6〉 국적에 따른 탈동기 요인별 평균 비교

국적에 따른 탈동기 값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북미·유럽권의 수치가 가장 높고, 다음이 동남아권,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이한 것은 일본 국적의 학습자가 흥미 결여 요인에서만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일본 국적의 학습자가 11명에 지나지 않고 그 중 2명의 학습자가 다소 탈동기화된 듯, 높은 값에 응답을 하여 전체 응답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북미 유럽권 학습자의 탈동기 값이 아시아권 학습자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여, 이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어 분야에서는 영어권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권 학습자에 대한 깊이 있고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요인별 값을 살펴보면 북미·유럽권 학습자의 경우 교육 자료와 학습 특성, 실패 경험에서 다른 국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탈동기 수치를 보였다. 즉 이들은 학습량에 대한 부담, 단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는 것, 또한 학습의 특성 부분에서도 학습 내용이나 진도, 의사소통의 기회, 문법 중심의 학습 등에 어려움을 느끼며, 실패 경험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나 시험에 대한 부담, 공부 방법이나 수업 내용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학습자의 경우 실패 경험 요인에서 다른 국적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일본 학습자에게 한국어는 학습 부담적 측면이나 단어, 시험 등에서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 학습자의 경우 흥미 결여 요인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동남아권에서의 높은 한류의 인기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석된다.

국적별로 탈동기 값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교육 자료와 실패 경험, 교실 분위기, 학습 특성, 그리고 내적 변인과 외적 변인 등 대부분의 요인에서 국적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로 보면 교육 자료의 경우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북미·유럽권과 중국, 북미·유럽권과 일본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 자료 요인에서 북미·유럽권 학습자가 중국이나 일본 학습자들에 비해 탈동기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북미·유럽권 학습자들이 중국이나 일본 학습자들에 비해 교육 자료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패 경험 요인의 경우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북미·유럽권과 중국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북미·유럽권 학습자가 중국 학습자에 비해 실패 경험으로 인한 탈동기화 현상이 더욱 강한 것으로 보인다.

교실 분위기의 경우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북미·유럽권과 중국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북미·유럽권 학습자가 중국 학습자에 비해 교실 분위기, 즉 학습자 수가 많은 것이나 시청각 자료, 인터넷 사용이 별로 없는 것 등으로 탈동기화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학습 특성의 경우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북미·유럽권과 중국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북미·유럽권 학습자가 중국 학습자에 비해 학습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의 경우에도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북미·유럽권과 중국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북미·유럽권 학습자는 내적 요인, 외적 요인 등 모든 요인에서 중국 학습자에 비해 탈동기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유럽권 학습자들은 한국어와 그들 언어와의 언어 환경적 차이가 커서 한국어 학습 시 중국 등 아시아권 학습자들에 비해 탈동기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탈동기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4.2.4. 모국어

모국어에 따라 탈동기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학습자의 모국어는 영어권이 223명, 중국 52명, 일본 10명, 동남아 12명으로 영어권이 73.8%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중국이 17.2%를 차지하였다. 동남아권과 일본권은 각각 2%와 3.3%를 차지했으며 그 외 기타권은 5명으로 이들은 한국어, 브라질, 러시아 등으로 인원수도 적고 동질적이지 않아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요인	국적	M	SD	F
교육 자료	영어권	1.86	.47	4.01**
	중국어권	1.61	.47	
	일본어권	1.57	.47	
	동남아어권	1.76	.52	
흥미 결여	영어권	1.39	.48	1.09
	중국어권	1.40	.60	
	일본어권	1.44	.62	
	동남아어권	1.17	.28	
교사행동	영어권	1.51	.29	3.48**
	중국어권	1.40	.28	
	일본어권	1.25	.30	
	동남아어권	1.43	.21	
실패경험	영어권	1.83	.71	4.07**
	중국어권	1.47	.56	

	일본어권	1.45	.52	
	동남아어권	1.65	.52	
교실 분위기	영어권	1.77	.48	2.96*
	중국어권	1.57	.41	
	일본어권	1.45	.46	
	동남아어권	1.61	.36	
학습특성	영어권	1.83	.49	4.47**
	중국어권	1.56	.49	
	일본어권	1.41	.38	
	동남아어권	1.74	.39	
내적 변인	영어권	1.61	.51	2.29
	중국어권	1.44	.54	
	일본어권	1.45	.55	
	동남아어권	1.41	.36	
외적 변인	영어권	1.74	.34	5.58***
	중국어권	1.54	.35	
	일본어권	1.42	.37	
	동남아어권	1.64	.30	

\*\* p<0.01 \* p<0.05 \*\*\* p<0.001

〈표 7〉 모국어에 따른 탈동기 요인별 평균 비교

모국어에 따른 탈동기 값을 살펴보면 국적에 따른 차이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대부분의 경우 영어권의 수치가 가장 높고, 다음이 동남아권,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국어 변인에서도 역시 일본 국적의 학습자가 흥미 결여 요인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동남아권 학습자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런 결과도 역시 일본인 학습자 2명의 응답이 일본 학습자 전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적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어권 학습자의 탈동기 값이 아시아권 학습자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본 학습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국어별로 탈동기 값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국적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교육 자료와 실패 경험, 교실 분위기, 교사 행동, 학습 특성, 그리고 외적 변인 등 대부분의

요인에서 모국어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로 보면 교육 자료의 경우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영어권과 중국어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 자료 요인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가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에 비해 탈동기 수치가 높다.

실패 경험 요인의 경우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영어권과 중국어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가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에 비해 실패 경험 요인에서 탈동기화 현상이 더욱 강한 것으로 보인다.

교실 분위기의 경우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영어권과 중국어권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가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에 비해 교실 분위기 요인에서 탈동기화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학습 특성의 경우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영어권과 중국어권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가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에 비해 학습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적 요인의 경우 국적별 차이와는 다르게 모국어로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적 요인의 경우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영어권과 중국어권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는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보다 외적 요인에서 탈동기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는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보다 내적 요인보다는 외적 요인에 의해 탈동기화되는 경향이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탈동기 요인을 분석하고 이들 요인이 학습자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크게 두 가지의 연구 문제로 정리될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요인별로 나타난 결과로는 ‘교육 자료’와 ‘학습 특성’ 요인이 학습자 탈동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흥미 저하’와 ‘교사 행동’ 요인은 탈동기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습자 변인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숙달도, 국적, 모국어 변인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볼 때 탈동기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육 자료와 학습 특성 요인이다. 따라서 우선 교재의 주제가 학습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학습자들이 학습의 양이나 어휘나 문형 중심의 한국어 수업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한국어 교수법의 변화와 학습의 부담량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어휘를 그냥 암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앱을 이용한 단어 게임 등을 이용해 놀이처럼 재미있게 학습을 하게 하는 것 등 학습자들에게 익숙한 매체를 이용한 학습 방법 등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학습자 변인 중 숙달도나 국적, 모국어에 따른 탈동기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이들 변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숙달도 변인에 있어서는 초급 학습자의 탈동기 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많은 학습자들이 한국어에 입문을 하나 급이 올라갈수록 학습자가 감소해 이들을 지속적으로 한국어 학습에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중급 학습자들의 경우는 흥미 결여 요인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반면, 교육 자료 요인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즉 아직도 흥미를 잃지 않고 있으나 교육 자료로 인한 탈동기 값은 높아 중급 학습자를 위한 교육 자료 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인터넷 사용이나 시청각 자료들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다양한 교육 자료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적이나 모국어 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로 영어권과 중국어권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아시아권 학습자와 서양권 학습자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어 교육이 주로 중국 및 동남아를 중심으로 확대되었으나 앞으로는 북미와 남미 및 유럽 뿐 아니라 아랍권과 아프리카권에 이르기까지 학습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행히 K-POP의 인기로 서구권에서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좋은 기회를 맞이한 만큼 이러한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학습자 특성에 맞는 교재와 교수 자료, 교수법 등의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는 이들 학습자들을 위한 교재 번역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번역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들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교재와 교육 자료, 교수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영어권 학습자나 아랍권이나 아프리카권 학습자들은 동양권 학습자들과는 공부하는 방법이나 태도가 상이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들에 대한 학습자 연구와 학습자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적합한 교재와 교수법이나 교육 자료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지영(2016), 한국어 학습자의 탈동기화 요인 연구, 새국어교육 107권, 361-397쪽, 한국국어교육학회.
- 김태영·이유진(2013), 회고적 에세이를 통해 분석한 우리나라 대학원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 탈동기화, 재동기화 요인, 사회언어학 21권 1호, 27-47쪽, 한국사회언어학회.
- 김태영(2015), 영어 학습동기 연구의 최근 경향, 102-103쪽, 한국문화사.
- 남애리(2012), 미국 대학 한국어 학습자의 동기 및 태도 연구 - 중서부 주립대 초급 학습자의 학습 지속 여부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9권 2호, 119-143쪽,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마지현·조영아(2014), The role of task presentation in L2 college students' task motivation and English grammar acquisition, 영어교과교육, 13권 1호 21-40쪽, 한국영어교과교육학회.

- 박한별(2018), 국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 재동기 요인 연구, 경희사이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방성원 외(2015),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 재교육과정 개발 연구, 정부간행물, 세종학당재단.
- 빙후승(2011), 한국 대학생의 영어 학습동기 저하 요인 분석,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송희·김태영(2015), 우리나라 하위권 영어학습자의 영어 학습동기와 탈동기 :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비교 연구,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20권 3호, 169-194쪽, 글로별영어교육학회.
- 임덕성·강동호(2015), 제 2언어 자아체계에서 본 한국대학생의 영어학습동기와 능력, *중등영어교육* 8권 2호, 79-102쪽, 한국중등영어교육학회.
- 여숙림·이종복(2015),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탈동기 요인 척도 개발, *현대영어영문학* 59권 1호, 211-231쪽, 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
- 정나래(2017), 한국어 학습 동기 및 탈동기 요인 연구 - 싱가포르 한국어 교양과목 수강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숙경(2011), *Demotivating and Remotivating Factors in Learning English : A Case of Low Level College Students*, *English Teaching*. 66권 1호, 47-72, 영어교육학회.
- 조영아·정호영(2015), *Re-motivating Factors in L2 Learning: A Comparison of Intensive and Non-intensive English Program Learners*, *영어교과교육* 13권 1호, 21-40쪽. 한국영어교과교육학회.
- 주미란·박성만(2015), 영어학습 탈동기 및 재동기 요인-성인 중하위권중심, *영어영문학* 21 28권 2호, 351-374쪽, 21세기영어영문학회.
- 최덕인·김태영(2013), 한국 중학생의 영어 학습 동기와 탈동기 요인: 상위권 학습자와 하위권 학습자 비교 연구, *영어영문학연구* 39권 2호, 245-274쪽, 대한영어영문학회.
- 홍종명(2017a), 한국어 학습자 탈동기 요인 및 변인별 양상 연구, 새국어교육

- 112, 147-171쪽, 한국국어교육학회.
- 홍종명(2017b),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자기결정성 동기 연구, *우리말연구* 51, 245-268쪽, 우리말글학회
- Arai, K. (2004), What 'demotivates' language learner?: Qualitative study on demotivational factors and learners' reactions. *Bulletin of Toyo Gakuen University* 12, 39-47.
- Akay, Cent. 2017, Turkish High School Students' English Demotivation and Their Seeking for Remotivation: A Mixed Method Research, *English Language Teaching: Vol. 10, No 8*, 107-122.
- Brown, H. D.(200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5<sup>th</sup> ed. Pearson Education, White Plains, NY.
- Crookes, G. and Schmidt, R. (1991), Motivation; Reopening the Research Agenda, *Language Learning* 41, 469-512.
- Dörnyei, Z. (1994), Motivation and motivation in the foreign language classroom, *Modern Language Juornal* 78, 273-284.
- Dörnyei, Z.(1998), Demotivation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Paper presented at the TESOL '98 Congress, Seattle, WA.
- Dörnyei, Z.(2005), *The Psychology of the Language Learner: Individual differenc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Deci, E. L., Koestner, R. and Ryan, R. M.(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 Dörnyei, Z. (1994), Motivation and motivating in the foreign language classroom. *Modern Language Journal* 78, 273-284.
- Dörnyei, Z. and Schmidt, R.(2001), *Motivation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Honolulu, HI: University of Hawaii Press.
- Dörnyei, Z. and Ushioda, E(ed). (2009), *Motivation, Language Identity and the L2 self*, Bristol, UK: *Multilingual Matters*.
- Dörnyei, Z. and Ushioda, E. (2011), *Teaching and researching motivation*.

- Harlow, England; New York: Longman/Pearson,
- Ely, C. (1986). Language learning motivation: A descriptive and causal analysis. *Modern Language Journal*, 70(1) 28-35.
- Falout, J. and Maruyama, M.(2004), A comparative study of proficiency and learner demotivation, *The Language Teacher* 28, 3-9.
- Falout, J. Elwood, J and Hood, M. (2009), Demotivation: Affective states and learning outcomes, *System* 37(3), 403-417.
- Falout, J.(2012), Demotivation: EFL Learners' Remotivation Processes,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16(3), 1-29.
- Gardner, R.(1985), *Social Psycholog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The Role of Attitudes and Motivation*, London; Edward Research 74, 59-109.
- Gardner, R.(1988), The socio-educational model of second-language learning: Assumptions, findings, and issues. *Language Learning*, 38(1), 101-126.
- Gardner, R.(2001). Integrative motivation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Z. Dörnyei, & R. Schmidt(Eds.), *Motivation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pp. 1-19). Honolulu, HI: University of Hawaii Press.
- Gorham, J. & Christophel, D.(1992), Students' perception of teacher behaviors as motivation and demotivating factors in college class, *Communication Quarterly* 40, 239-252.
- Hassaskhah, Zafarghandi & Frazeli(2015), Reasons for demotivation across years of study: voices from Iranian English major students, *Educational Psychology*, 35(5). 557-577.
- Hu, W. and Cai, J. (2010), Construction of Model of Demotivation in English Learning, *Foreign Language Education*, 31(3), 41-49.
- Kim, K. J. (2009), Demotivating factors in secondary English education, *English Teaching*, 64(4), 249-267.
- Kikuchi, K. and Sakai, H.(2007), Japanese learners' demotivation to study English: A survey study. Unpublished manuscript.



- Kikuchi, K.(2015), Demotivation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Multilingual Matters.
- Kojima, S.(2004), English learning demotivation in Japanese AFL students: Research in demotivatioal patterns from the qqualitative research results of three different types of high schoo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sei Gakuin University.
- Li, L.. (2013), A study on Internal Factors of Chinese College EFL Learners' Dempotivation, *Journal of PLA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s*, 36(2), 65-59.
- Li, L. and Zhou, C. (2013), Different faces of demotivation: A comparative study on Chinese and Korean college EFL learners' demotivators, *Journal of Applied Sciences* 13, 800-809.
- Li, C. and Zhou, T. (2017), A Questionnaire-based Study on Chinese University Students' Demotivation to Learn English, *English Language Teaching*, 10(3), 128-135.
- Ryan, S. (2008), The ideal L2 selves of Japanese learners of English, Ph.D thesis, University of Nottingham.
- Sakai, H and Kikuchi, K.(2009), An analysis of demorivators in EFL classroom, *System* 37(1), 57-69.
- Sakai, H. and Kikuchi, K. (2018), Japanese learners' demotivation to study English, [Provider:e article] Download by IP 165.132.188.64 at Friday, December 14, 2018 12:20 PM [www.earticle.net](http://www.earticle.net)
- Sun, Y. M. & Lei, L.(2013), An Analysis of Demotivators in Chinese college EFL classrooms, *Foreign Language Research*, 5, 57-65.
- Trang, T. T. T. & Baldauf Jr, R. B.(2007), Demotivation Understanding Resistance to English Language Learning - The Case of Vietnamese Students, *The Journal of Asia TEFL*, 4(1), 79-105.
- Tsuchiya, M.(2004), Factors in demotivation concerning learning English: A Preliminary study of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The Kyushu*

- Academic Society of English Language Education(KASELE)* 32, 57-66.
- Tsuchiya, M.(2006), Factors in demotivation of lower proficiency English learners at college, *The Kyushu Academic Society of English Language Education(KASELE)* 34, 87-96.
- Ushioda, E.(1998), Effective motivational thinking: A cognitive theoretical approach to the study of language learning motivation, In E. A. Soler & V. C. Espurz (Eds.), *Current Issues in English Learning Methodology* (77-89), Castello'de la Plana, Spain: Universitat Jaume.
- Woolfolk, A.E, Winne, P.H. & Perry, N.E., (2003). *Educational psychology* (2nd Ed). Pearson Education Canada.
- Zhou, C. & Wang, W. (2012), Demotivators Analysis of Chinese University EFL Learners, *Foreign Languages in China*, 9(1), 48-55.

김미옥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120-749

전화: 02-2123-3477

E-mail: miokim@yonsei.ac.kr

논문 투고 일자 : 2019년 3월 26일

심사 완료 일자 : 2019년 5월 16일

게재 확정 일자 : 2019년 5월 16일